

“기업지원, 불법만 아니면 다할 터”

김승수 전주시장이 20일 간부회의에서 지역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법만 아니면, 뭐든 다하겠다는 자세로 기업지원에 나설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현재 추진 중인 기업 기 살리기는 기업의 사업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며 “기업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 검토하고 지원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민선 6기 하반기에 추진하는 전주시정의 핵심 중의 핵심은 기업지원”이라며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만 머무르거나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공하는 일이 있을 경우 결코 용납

김승수 전주시장,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지원 강조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시장의 주문은 기업 기 살리기가 단순히 사업주는 물론 특정 기업의 지원이 아니라 작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판로확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해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총력을 집중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김승수 시장 주재로 지역기업 기 살리기 현안회의를 격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지역기업 제품 구입 실적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해결 등 지원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시는 올 하반기부터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지역 제품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설계하고, 지역 건설업체 공사 용 자재 직접 구매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18일 전문건설협회 간담회를 갖고 기업 기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어 21일에는 전주지역 내에 공사를 하고 있는 민간건설 공동주택 현장소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기업 생산자재를 우선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는 또 기업들이 경영활동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애로담당관제’를 도입했다.

김 시장은 “기업을 직접 가서보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행정에서 맘만 먹으면 도울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본다”면서 “기업지원을 위한 제1과제로 지역생산품 구매로 알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김승수 시장은 지난 4월 도내 유일의 로드형 카바인 생산업체인 (주)가자 방문을 시작으로 직접 기업을 찾아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갖는 등 ‘지역기업 기(策)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침체에 빠져 있는 산업현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은 전주농협조합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현덕 전주시의원, 전주농협조합 감사패 받아

농업인 권익 향상 공로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삼천1·2·3, 효자1·2동)이 농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기여한 공로로 전주농협조합(조합장 임인규)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김 의원은 20일 전주농협공판장에 열린 ‘전주농협공판장 개장 20주년 및 사람나눔 대전지’에서 농업인 권익 향상과 전주농협 공판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산물 유통의 핵심으로 성

장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김 의원은 한결같은 열정과 신념으로 전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전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지역 주민의 봉사자로서 현장에서 발로 뛰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수입 농산물과 일손 부족 등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 농산물 유통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식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20일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한 '2016 자원봉사 특화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은 자원봉사자 양성을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2회 15회 강의 일정으로 진행된 5개 교육과정을 수료한 100여명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마중길 조성사업 현장점검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20일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삼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보행중심의 명품 특색거리로 조성하고 있는 마중길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척 상황을 체크하고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의원들은 특히 “전주역 광장에서 명주골 구간에 조성 중인 사업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시민불편 최소화를 당부했다.

이어 위원회는 7월말 준공을 앞둔 삼성천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교량, 돌담길, 산책로 등 공사 현장을 점검했다. /김영재 기자

교통사고 뺑소니 20대 운전자

고속도로 다리서 투신 종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 중태에 빠졌다.

2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10시경 전주시 진북동 진북터널에서 A(22)씨가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고 도주했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는 3시간여가 지난 다음날 오전 1시경 완주-순천 고속도로 동전주IC 인근 한 다리 위에서 30m 아래로 투신했다.

고속도로에 차량이 멈춰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리 아래서 운전자 A씨를 발견, 병원으로 이송했다. /박용주 기자

군산서 40대 성범죄자 전자발찌 끊고 서울로 도주... 경찰 추적

군산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40대 성범죄자가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이 추적이 나섰다.

20일 전북경찰청과 군산보호관찰서 등에 따르면 전남 밤 군산에 사는 강모(45)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서울로 도주해 공개수배로 전환, 추적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강씨에 대한 공개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강씨의 도주로를 추적의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 공개수배 전단에 따르면 도주한 강경원(45)은 키 165cm에 62kg의

마른 체형으로 스포츠머리를 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를 관리하는 군산보호관찰서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이날 오전 충남 보령에서 강씨가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발찌를 발견했다.

조사결과 SM5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 강씨는 충남 보령시 관천IC 인근에 훼손한 전자발찌를 버린 뒤 도주했으며, 서울 은평구에서 행적(차량)이 포착됐다.

강씨는 여성을 성폭행해 처벌을 받은 뒤 지난해 7월부터 법원의 명령으

로 전자발찌를 착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전에도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서울을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의 주거지와 도주 경로의 CCTV 분석 결과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의 연고지와 지인을 중심으로 탐문수사를 통해 도주경로를 파악,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강씨를 목격한 사람은 112 또는 군산경찰서 수사전담팀(063-441-0372)로 신고하면 된다. /박용주 기자

‘선거법 위반’ 성은순 전주병 예비후보 부부 징역형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예비후보로 나선 성은순 예비후보(48·여)와 남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예비후보의 남편 양모(51)씨에게 징역 1년, 성 예비후보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선거운동원 강모(53)씨에게 징역 6월 및 추징금 500만원, 무등록 선거사무원 소모(6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100만원, 선거사무소 홍보국장 겸 후원회장 박모

(55)씨와 선거운동원 윤모(48·여)씨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사무장 송모(67)씨 등 2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11명에게는 각 100만~3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성 예비후보와 양씨는 성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지난 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선거운동원 강씨에게 관공비 300만원,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올 3월 선거사무소 조 바이이트생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준 대가로 현금 155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서류 위조’ 은행대출사기 일당 적발

전세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위조해 정부가 지원하는 전세자금과 영세사업자 운영자금을 시중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로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재직증명서와 매출서류 등을 위조해 은행에서 거액의 전세자금과 창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브로커 정모(41)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한 정씨를 도와 서류를 위조한 홍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허위로 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뒤 시중 은행에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총 4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용주 기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중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들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